

‘국가 대표 AI’ 타이틀 두고 혈전 벌어진다

오늘 ‘독자 AI 모델’ 공모 마감

GPU·데이터·인재 전폭 지원
5개사 선발해 최종 2곳 압축

선정된 공공 사업에 유리한 고지
SKT·KT·네이버·카카오·LG 등
대표 IT 기업, 모두 출사표 전망



SK텔레콤, KT, LG AI연구원,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을 앞다퉈 공개하고 있다. ‘국가대표 AI 모델’이란 명예를 거머쥐기 위한 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5개사를 선발해 최종적으로 2개사를 남길 예정이다. 최종 승자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서비스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실적 측면에서 ‘윈윈 점프’가 예상된다.

◆‘K-AI 모델’ 영예 두고 치열한 경쟁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공모가 마감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은 해외 모델의 파인튜닝(미세 조정)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니라 모델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을 뜻한다. 국내외 벤치마크 등에서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다.

AI 개발 능력을 갖춘 국내 주요 IT 기업이 이미 도전장을 냈거나 참여를 조율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독자 구축한 ‘에이닷엑스 3.1’을 공개하며 사업 신청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구축 단계부터 자체 기술을 적용하는 ‘프롭 스크래치’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KT는 3일 ‘말:음 2.0’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도전장을 던졌다. KT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챗GPT 기반 한국어 특화 모델 개발에 집중했지만, 최근 들어 자체 모델에 다시 힘을 주는 모습이다. 엔씨소프트는 AI 전문 자회사 NC AI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16일 ‘바르코-비전 2.0’을 오픈소스로 내놨다.

하이퍼클로바X를 보유한 네이버와 엑사원을 개발한 LG AI연구원도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어 두 기업 모두 공식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카나나’를 개발한 카카오 역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코난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등 중소·중견 AI 기업도 참여할 계획이다.

◆GPU부터 데이터, 인재까지 지원
정부는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5개 정에 팀을 우선 선발한다.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4개 팀, 하반기 3개 팀, 2027년 2개 팀으로 지원 대상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GPU는 사업 첫해 엔비디아의 H100 1000개 또는 B200 500개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B200 1000개로 지원 규모를 늘린다. 아울러 2027년까지 총 628억원을 들여 각 기업에 AI 모델 학습에 쓸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우수 AI 연구자 영

입에도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 AI 모델 의존으로 파생되는 기술, 문화, 국가적 종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제공하면 민간과 공공에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각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AI 전환(AI)을 통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매력을 느낄 만한 지원 규모”라며 “이점이 많은 만큼 AI 모델 제작 능력을 갖춘 기업 대다수가 사업에 지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삼성SDS, IBM 오픈소스 LLM 도입 검토

‘그라니트 3.1’ 내부 테스트

삼성SDS가 인공지능(AI) 업무보조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의 백엔드 거대언어모델(LLM)로 IBM의 오픈소스 모델 ‘그라니트 3.1’을 내부 테스트했다. 외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반 GPT 모델의 보안성과 비용 문제를 보완하고, 온프레미스(구축형) AI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일 IT서비스·AI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브리티 코파일럿에 그라니트 3.1의 적용 여부를 테스트했다.

그라니트 3.1은 IBM이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LLM이다. 최대 128K 토큰(텍스트 기준 약 30~40쪽 분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문 이해 능력과

함수 호출, 유해성 감지 기능을 갖췄다.

특히 오픈AI의 GPT 계열 모델과 달리 기업 내부망에서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라이빗 배포가 가능,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전송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삼성SDS가 ‘프라이빗 AI’ 환경을 요구하는 금융·공공 분야 수요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SDS는 브리티 코파일럿의 LLM으로 오픈AI의 ‘GPT-4o 미니’를 활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외부 서버와 연결된 API를 통해 작동하는 방식이어서 데이터 보안·응답속도·비용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삼성SDS가 그라니트 3.1 도입을 확정할 경우 GPT 백엔드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병행 운영할 것으

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GPT-4o 미니 기반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나 고객사는 그라니트 3.1 기반을 선택하도록 LLM 엔진을 다변화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멀티 LLM’ 전략이다.

이를 통해 삼성SDS는 서비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LLM을 병렬 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그라니트 3.1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 서도 “지금은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대답 대신 일하는 AI’로 업무방식 바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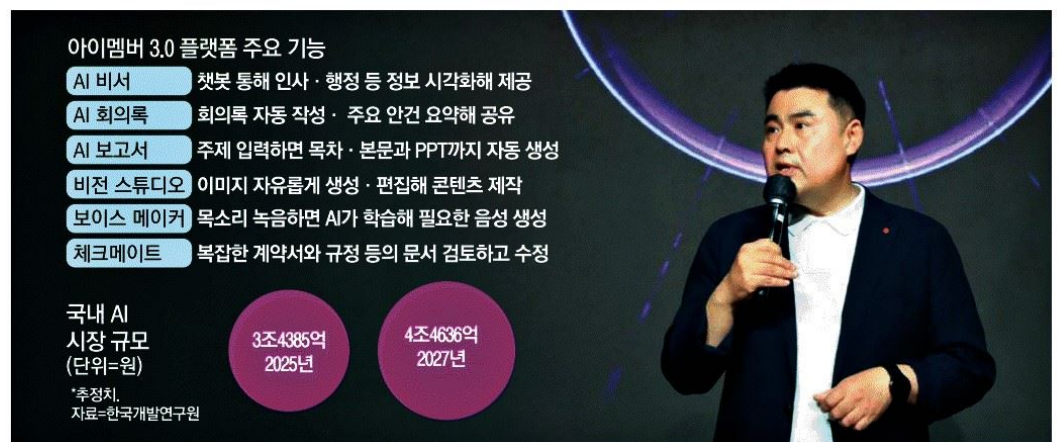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기업용 AI 에이전트 6종 공개
AI가 회의록 만들고 요약까지
주제만 입력하면 보고서 똑딱
연내 고객사 300곳으로 확대
국가대표 AI 모델에도 도전

“AI(인공지능)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업무 성과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가 지난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롯데 AI 쇼케이스 2025’에서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플랫폼 ‘아이멤버 3.0’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매일경제와 만난 김 대표는 “아이멤버 3.0은 기술이 아닌 ‘업무 방식’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이라며 “롯데 60여 개 그룹사 7만명 이상이 매일 아이멤버를 사용하면서 업무 전 영역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검증된 실제 사용 경험과 자체 기술 내재화를 바탕으로 더 똑똑하고 안전한 AI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현재 100여 곳인 고객사를 연말까지 3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이노베이트에 따르면 아이멤버 3.0에는 총 6종의 업무 특화 AI 에이전트가 적용됐다. 탑재된 에이전트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가 지난 18일 ‘롯데 AI 쇼케이스 2025’에서 에이전트 플랫폼 ‘아이멤버 3.0’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이노베이트

서비스는 △AI 비서(챗봇) △AI 회의록 △AI 보고서 △비전 스튜디오(이미지 생성 및 편집) △보이스메이커(음성 생성 및 합성) △체크메이트(문서 점검 및 검토) 등이다.

각각의 에이전트는 업무 목적별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AI 비서는 복수의 챗봇을 하나의 대화방에서 목적별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검색·API 연동·데이터 시각화까지 통합 수행이 가능하다.

아이멤버를 활용해 사내 매뉴얼을 바탕으로 업무용 챗봇을 구축할 경우 임직원들이 챗봇 대화창에 인사, 행정, 기획 등 업무 문의를 하면 분야별 담당자 확인 없이도 원하는 정보를 즉각 얻을 수 있고, 관련 정보도 원하는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AI 회의록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회의록을 자동 작성하고, 주요 안건 및 키워드를 요약해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준다.

보고서 자동화 기능도 고도화됐다.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와 본문이 자동 생성되고 설득력을 높이는 시각화 툴도 지원한다. 행사에서는 회사 관계자가 ‘2025 주요 소비 트렌드와 배경’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자 1분 만에 파워포인트 형식의 보고서가 자동 생성되는 시연도 펼쳐졌다. 김 대표는 “이제는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단계”라며 “정보 탐색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맡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보안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아이멤버 3.0은 챗GPT와 제미니 등 외부

AI와의 연동 시에도 보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 접근을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대표는 “전 그룹 계열사가 직접 써보고 운영하며 각 기능을 개선시키고 기존 시스템에 체화하고 있다”며 “금융권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많은 현장에서도 성과를 내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언어·비전·음성 전 영역에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산업별 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B2B(기업 간 거래) 시장 확대와 공공·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기 기자

“독도는 한국 땅”... KT의 믿음2.0 ‘한국형 전략’ 눈길

우리나라 역사·문화·사회 맥락 반영
상사에 보낼 문자 요청엔 예의 중시
복잡한 자료 해석 능력은 보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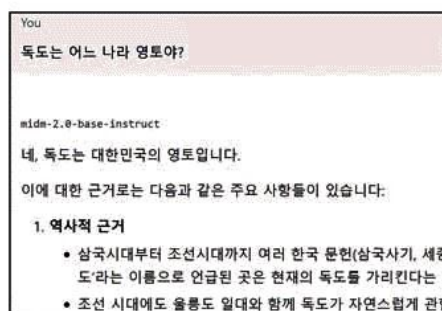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 근거로는 △역사적 근거 △실효적 지배 △국제법적 근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 베이스 모델에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라고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챗GPT가 독도를 한일 분쟁 지역으로 답해 논란이 됐던 것과 비교됐다.

■챗GPT보다 더 예의 잘 지켜

20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 4일 자체 개발한 LLM ‘믿음 2.0’을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역사·문화·사회 맥락을 반영한 ‘한국적 AI’가 강점이다. 기자가 20일 직접 믿음 2.0을 PC에 내려받아 사용해봤다.

몇가지 질문을 던져본 결과 믿음 2.0은 한국적 역사관은 물론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사고 방식을 보여줬다. 믿음 2.0에 회사 상사한테 보낼 ‘연차 사용 고지 문자’ 작성을 요청하니 “바



믿음2.0 베이스 모델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답하는 모습 사진=박성현 기자

쁘신 와중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게 돼 죄송하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가족 행사가 있어 연차를 하루 사용해야 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 “항상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문구를 제시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내일 가족 행사 참석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 “바쁘신 와중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답한 챗GPT보다 단어 사용이 완곡하면서 정중했다.

■보고서 해석 능력은 다소 아쉬워

보고서나 표 등 복잡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은 다소 취약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

서를 첨부해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를 알려달라고 하자 믿음 2.0은 “해당 자료에서 분야별로 물가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최근 5년 지하철 사고 현황’ 엑셀 자료를 삽입한 뒤 요청한 사고 유형과 발생 장소 등의 분류 역시 수행하지 못했다.

PC에만 깔아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웹을 검색해서 알아봐주지 못하는 점은 아쉬웠다. 지난 10일 노사가 합의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묻자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믿음 2.0의 최종 학습 시점은 약 7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이다. PC에만 설치해둔 믿음 2.0이 웹을 탐색할 수는 없으니 벌어지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믿음 2.0 베이스 모델이 아직 초기 형태인 만큼 취약점을 점차 보완해나가며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T가 통신 업계 만형으로서 독자 개발 모델 믿음 2.0을 개발한 것은 AI 주권 확보를 리드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델을 발전시켜 국내 소버린 AI 모델의 표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이해진 승부수... '美 특화 SNS' 낸다

네이버가 구상·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을 조만간 공개한다. SNS 플랫폼의 명칭은 '싱스북(ThingsBook)'이다. 국내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화에 성공한 사용자제작콘텐츠(UGC) 운영 경험을 SNS 플랫폼에 이식해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기사 3면

19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테크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 유허브가 올 9월을 목표로 '싱스북'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미 5월 미국에 싱스북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싱스북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엠베스터'를 모집 중이다.

네이버 블로그+이미지 형태...9월 '싱스북' 현지 론칭 첫 글로벌 네이티브 플랫폼, 북미 'UGC 데이터' 확보

다. 네이버 관계자는 "유허브 주도로 신규 UGC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미국 현지 사용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싱스북은 네이버 블로그와 이미지 중심의 SNS를 결합한 형태다. 블로그에 흔히 보이는 책·영화·음악·여행 등 취미 활동 포스트를 각 사용자 계정에 한대 모은 후 Z세대에 어울리는 감각적 사용자경험(UX)으로 마감했다. 친구 또는 선호하

는 블로그의 계정을 팔로우하면 사진보다 깊이 있는 포스트를 인스타그램처럼 볼 수 있는 구조다.

네이버가 '글로벌 네이티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인·밴드·웹툰 등은 모두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 후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이들과 달리 싱스북을 북미에서 먼저 내놓는 것은 현재 한국과 동아시아권 대비 부족한 북미 UGC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시작 단계부터 현

지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올 6월 네이버벤처스 출범식에서 실리콘밸리 특파원단을 만나 "최근 UGC가 인공지능(AI)에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UGC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밝힌 바 있다.

포시마크·크림 등 상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로그는 '취미' 기반 포스팅이 대부분이어서 중고 거래와 시너지를 낼 요소가 많다. 네이버의 특장점인 UGC·상거래 빅데이터 기반 특화 AI라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양지혜 기자

UGC에 검색·커머스 연결한 'AI SNS'...구글·메타와 정면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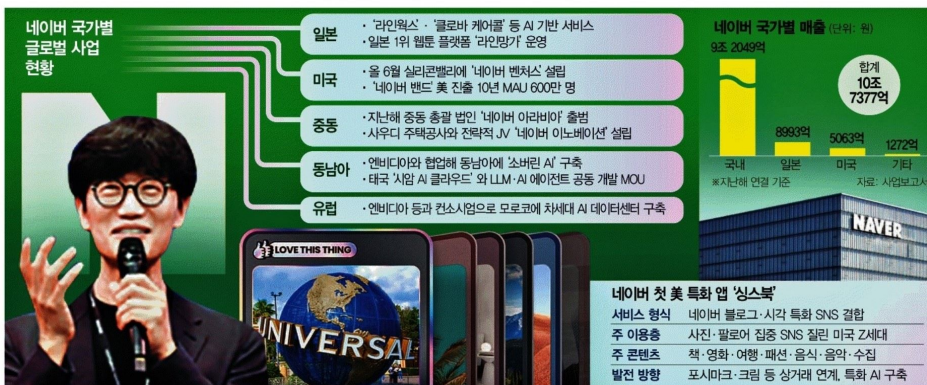
< 사용자제작콘텐츠 >

네이버, 미국 특화 SNS '싱스북'은

"네이버는 사용자제작콘텐츠(UGC)와 검색·상거래 연계를 통해 구글과 차별화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AI)에서도 네이버만이 지난 UGC·상거래 데이터의 힘을 믿습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특파원단과 만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북미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도 사용자 데이터와 상거래"라고 강조했다. 챗GPT 등 기초 AI 모델로 비

영화·여행 등 책장 넘기듯 보여줘 블로그 옮긴 듯한 UX로 MZ 겨냥 중고거래 포시마크·크림 등과 연계 피규어·책·명품 마니아 본격 공략 검색·결제 한번에 'AI비서'도 접목



테크와 경쟁하기는 힘들더라도 UGC·상거래 빅데이터만 확보한다면 네이버가 26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더해 특화 AI로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네이버가 준비 중인 북미 특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싱스북(ThingsBook)'은 현지 UGC 데이터 확보를 위한 무기다. 19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테크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싱스북을 "화려한 사진과 팔로워 숫자에 집중하는 기존 SNS와는 다른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들을 위한 '개인 박물관'"이라며 "물건과 경험을 수집하고 정리해 블로그처럼 기록하고 시작적으로 매력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네이버 블로그처럼 '깊이 있는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SNS라는 의미다. 실제 싱스북은 네이버 블로그를 인스타그램 같은 시각 특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한 듯한 사용자경험(UX)을 보여준

다. 팔로·팔로워 수 대신 게시물·좋아요·댓글 수가 나타나는 점도 블로그를 연상하게 하는 요소다.

싱스북은 각 계정에 책·영화·달력과 가로·세로 콘텐츠 등 5개 화면을 제공한다. 여행기, 요리법, 체험기, 각종 후기 등을 나누는 카테고리별 마치 책장 속 책처럼 보여주고 영화 리뷰는 DVD 케이스처럼 정리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식이다. 달력 페이지에서는 각 일자별 포스트를 달력 속 일정처럼 확인할 수 있어 여행기 등을 일정대로 따라가기 좋아 보인다. 가로·세로는 전체 콘텐츠를 카드처럼 정리해 '스와이프'로 손쉽게 훑어볼 수 있는 기능이다.

색감과 디자인은 Z세대가 열광하는 틱톡·스냅챗을 떠올리게 한다. 싱스북은 북미 Z세대를 주 사용자층으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 Z세대에 블로그가 인기인 만큼 북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의장은 "블로그가 오래됐지만 10·

20대에게는 생소하고 처음 보는 서비스"라며 "SNS도 패시브처럼 모두가 사용하면 쓰기 싫어지는 유행 사이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는 Z세대 특화 SNS이지만 내부는 네이버 블로그처럼 사용자 스스로 작성한 질 높고 전문한 콘텐츠로 차 있다. 이는 싱스북이 수집할 데이터의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근 AI계는 학습 데이터 고갈로 고민이 크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형화' 데이터를 모두 학습해 AI 학습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는 행편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히 콘텐츠를 올리는 UGC 데이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구글·오픈AI 등이 북미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과 거액의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이유이기도 하다.

싱스북이 노리는 콘텐츠 방향성에서는 상거래와 의도가 느껴진다. 출시와 함께

활동할 엠베스터로 '피규어·레고·트레이딩카드·스니커즈·LP·와인·자동차·스타워즈·마블' 등에 열정 있는 자'를 원했다. 모두 마니아층이 확고한 동시에 중고 거래가 활발한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2023년 인수한 북미 중고 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최근 미국 스톡엑스와 합병한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 등과 연계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싱스북 포스트와 상거래 플랫폼을 광고·직링크 등으로 직결

하는 방식 등이 떠오른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는 의문이 있지만 상거래 데이터 확보를 위함"이라고 했다. 이미 확보한 북미 상거래 데이터에 싱스북의 UGC 데이터를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UGC·상거래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 AI 개발을 뒷받침한다. 이 의장은 "검색 엔진도 초기에는 알고리즘 경쟁이었으나 상황평준화 이후 차별화 데이터 싸움이

됐고 AI도 그럴 것"이라며 "한국 AI 기술력이 미국·중국보다 부족하지만 UGC와 상거래 등 특정 분야 소비인 AI로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미 AI 개발에 UGC를 적극 활용 중이다. AI 에이전트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2027년까지 검색부터 예약·결제까지 모두 가능한 통합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세 살 아이와 함께 갈 식당 추천해줘"라고 명령하면 AI가 블로그 내 제주도 식당 후기를 종합 분석해 맥락·취향에 맞는 장소를 추천해주는 식이다. UGC 콘텐츠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AI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싱스북을 시작으로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기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철학을 지닌 이 의장이 연초 경영 일선에 복귀한 후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주택공사와 전략적 합작법인(JV) '네이버 이노베이션'을 설립하고 중동 현지 슈퍼앱 구축과 디지털 트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태국 AI·클라우드 기업인 '시암 AI 클라우드'와는 연내 태국에 특화 관광 전문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엔비디아와 컨소시엄으로 모로코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양지혜 기자

“AI클라우드가 우리가 ”... 불꽃 경쟁

‘AI 3대 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AI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클라우드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SDS, KT, 네이버, 카카오, NHN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각자의 강점과 전략을 앞세워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직접 구축 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AI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현 정부 역시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 누가 정부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선언하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과 금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로 시스템 현대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오는 9월 공공 전용 패브릭스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는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인프라(CSP), 클라우드 구축 운영(MSP), 보안 서비스와 함께 공공 부문 보안인증(CSAP) 등을 취득

삼성SDS·KT·네카오 등
주도권 잡기 전략마련 분주
쿠광도 참전... 긴장 고조

한 상태다.

KT클라우드는 AI 클라우드 사업 협력을 넓히며 ‘AI 파운더리’ 생태계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텔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텔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서비스를 자사의 AI 서비스 플랫폼 AI 파운더리에 접목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KT클라우드는 국가정보원 ‘상 등 급’ 보안 검증도 통과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를 포함해 로봇, 거대언어모델(LLM), 디지털 트윈, 운영 체제 등 정부의 첨단 산업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AI 스타트업 LLM 챌린지’ 등 정부 주도 사업에도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현 정부 내각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다수 기용된 점도, 향후 정부 사업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고성능 AI 클라우드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세계 슈퍼컴

퓨터 순위 ‘TOP500’에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중 유일하게 41위에 올랐다. 이는 자체 기술로 GPU 256노드 클러스터링을 구현한 결과다. 256개의 GPU 노드를 묶어 하나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게 한 기술로, AMD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NHN클라우드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에서는 참여한 7개 공공기관 중 5곳에 인프라를 공급했으며, 지난해에는 17개 기관 중 9곳의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NHN클라우드는 정부 주도 AI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AI 클라우드 육성 기조와 달리,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은 여전히 외국계 중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60.2%로 압도적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24%), 네이버 클라우드(20.5%), 구글 클라우드(19.9%) 등이 뒤를 잇는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KT가 8.2%, NHN이 7%, 삼성SDS는 1.2%로, 외국계 기업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뒤처진다.

여기에 쿠광이 이달 초 ‘쿠광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출범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들면서 업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쿠광은 적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업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 보인다”며 “클라우드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는 상황에 관련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쿠키뉴스 기자

jwj3937@kukinews.com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KAIST ‘AI 4대 석학’과 AI 확산모델 개발

안성진·벤지오 교수 공동 연구
“지능형 로봇 핵심 기술로 활용”

KAIST는 안성진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이 세계 인공지능(AI) 4대 석학으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 대 교수와 ‘확산(디퓨전) 모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스테이블 디퓨전’ 등 텍스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확산 모델은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다. 하지만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산 자원을 늘려도 성능이 크게 개

선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안 교수와 벤지오 교수 연구팀은 확산 모델의 ‘추론-시간 확장성’을 향상한 기술을 개발했다. 추론-시간 확장성은 AI가 연산 자원의 양에 따라 성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기존 확산 모델은 단순히 데이터양을 늘리거나 모델을 키우는 방식만으로는 성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없었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추론 방식을 제안했다. 다양한 생성 경로를 트리 구조로 탐색해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고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구팀

은 기존 모델이 전혀 풀지 못한 초대형 미로 찾기 과제에서 100% 성공률을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확산 모델의 속도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트리 탐색 구조를 병렬 처리해 기존보다 최대 100배 빠른 속도로 동일하거나 더 나은 품질의 결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인 ‘국제기계학습학회(ICML) 2025’에서 전체 논문 중 상위 2.6%에 해당하는 스포트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비용 계산이 요구되던 기존 확산 모델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한 기술”이라며 “지능형 로봇, 생성 AI 등 다양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상호금융도 AI 바람... 새마을금고 ‘위키’ 도입

업무 질의응답 등에 첫 활용
시스템 구축 내년 시범 운영
‘신속 고객 응대’ 기대감 UP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중 처음으로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을 AI에 질문할 수 있다. 중앙회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는 ‘위키’ 시스템도 구축한다. 생성형 AI 활용으로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면 새마을금고 고객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일반지식 질

새마을금고

생성형 AI 서비스 실증 사업

목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지식 및 일반 지식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금고 임직원의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내용	· 내부 '업무지식 질의응답' 서비스 구축 · 중앙회 임직원의 자유로운 지식 참여 시스템 '중앙회 위키' 구축 · AI 조직체계 수립 등
예산	9.9억원
기간	8개월

*자료: 새마을금고중앙회



의응답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고 금고 임직원이 이를 이용하게 해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고 직원은 업무지식 등을 생성형 AI에 물어볼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일일이 문서를 뒤져보는 시간이 없어져 업무 수행이 빨라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

앙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중앙회 위키’도 만든다. ‘위키’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집단으로 쌓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국내에선 ‘나무위키’가 유명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이 업무 노하우나 매뉴얼, 팁 등을 위키 형식으로 공유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기회에 AI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AI법률, 정보보호 등 규제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주요 시중은행은 일찌감치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상호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가 처음으로 도입 움직임을 보였다. 새마을금고는 8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사업(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

문서 디지털화 '다큐먼트 AI' 시장 개화

로민·업스테이지, OCR 기술 활용
그림·표 등 가용 데이터로 고도화
금융·공공 분야 수주 경쟁 치열

광학문자인증(OCR) 기술 기반 다큐먼트 인공지능(AI) 시장이 열리고 있다. 문서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금융·공공부문에서 AI OCR 기술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기업·기관 내 AI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큐먼트 AI 시장에서 로민과 업스테이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양사는 AI OCR 기술을 활용, 한국어는 물론 과거 글씨체, 영어 등 외국어, 다양한 문서 서식이나 그림·표까지 분석해 정교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한다. 기업의 로데이터를 가용 데이터로 고도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로민은 자체 개발한 AI 딥러닝 모델 기반 대량의 문서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 높은 인식률과 처리 성능을 확보한 OCR 엔진 '텍스트스코프 리더'를 제공한다. 노이즈가 많은 저품질 문서에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인

쇄체·필기체·타자체를 모두 인식하는 게 강점이다.

실제 국가기록원의 '한글 타자기록 문자인식 기술 개발'로 타자체 문자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98% 이상 인식률을 달성했다. 공문서 영문타자체 인식 기술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과거 공문서를 디지털화했으며, 특수문자 속성도 인식하는 기술로 특허청의 화학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다큐먼트 파스'로 사람이 문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문서 내용을 디지털화, 다양한 형태의 문서 자산으로 변환을 지원한다. 11가지 형태 문서를 디지털화해 HTML, 텍스트 등 양식으로 21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결과값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에 AI OCR 기술을 적용, 다양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47종 카테고리 분류하고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문서 7종 데이터를 자동 추출·입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게 대표 사례다. 한 e커머스 기업의 상품 특성 검색과 트렌드 분석을 고도화하고 글

로벌 사업을 위한 번역 등도 지원했다.

양사의 다큐먼트 AI 사업 수주 경쟁은 치열하다. 금융과 공공은 물론, 문서의 디지털화 수요가 큰 산업군에서 계속 맞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스테이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와 제조·유통 분야 다양한 기업 고객을 확보했다. 로민은 KB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교보생명 등 금융사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교육·자동차산업군 레퍼런스도 있다.

양사 외에도 애자일소다, 리걸 분야에서는 BHSN,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삼쩜삼 등이 AI OCR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과거부터 축적해온 문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기 위해 다큐먼트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라며 "사내 데이터가 곧 기업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수요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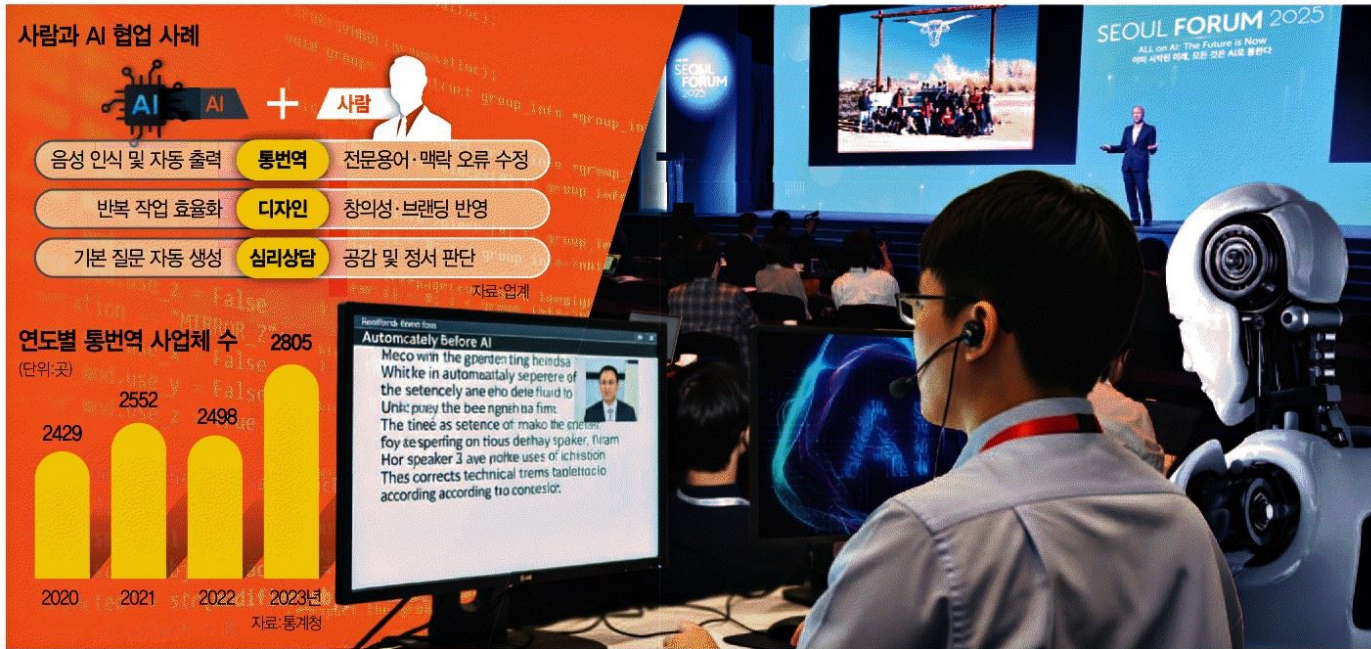
AI 실시간 번역 후 사람이 보완... '하이브리드 통역' 시대 열린다

생존 위기 산업 '新시장' 창출

서울의 한 국제회의의 현장. 통역사 김운정(가명) 씨가 반도체 국제 포럼의 동시통역 부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화면에는 연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 생성된 영어 번역문이 떠오른다. 김 씨는 그 문장을 참고해 화자의 의도를 살리고 전문용어를 맥락에 맞춰 바로잡는다. 사람과 인공지능(AI)의 협업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통번역 업체 제이엠커넥티드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통역 솔루션'이 상용화된다면 가능한 장면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발 생존의 위기를 뚫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이란 우려를 비웃듯 통번역 시장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도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 5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이 발표한 '통역사의 AI 활용 및 인식' 논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통역사 109명 중 75.2%가 통역 작업 준비에 생성형 AI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이 중 57.8%는 AI를 통역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도구로 인식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AI 자동화 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어떤 분야든 AI와의 결합은 필수"라며 "이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시대 통번역 업계의 활로는 사람과 AI의 협업 모델이다. '하이브리드 통역'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AI 홀로 뉘앙스나 문맥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일반적인 통역 과정에는 통역사 2명이



뉘앙스·발음·전문용어 이해 한계
오류 수정 등 '사람의 손길' 필수

디자인은 AI 디렉터로 거듭나
기술보다 기획력·감각 중요해져

생성형 AI 고도화·협업 확대 속
인간 고유 전문성 키우는게 중요

연사의 말을 번갈아가며 통역한다. 하이브리드 통역에서는 통역사 1명 대신 AI가 두

입된다. 인간 통역사는 AI 통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AI가 연사의 음성을 문자화하고 이를 다시 음성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AI 전문 업체 박정우 소이넷 대표는 "AI가 '주거지역'을 '죽어지역'으로 들어서 'residential area' 대신 'dead place'라고 번역할 때도 있다"며 "전문 영역으로 분류되는 통역일수록 AI가 모든 용어를 학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사의 발언 중 80%를 보편적인 언어라 분류한다면, 전문 영역으로 분류되는 20%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 통역사가 필수라는 얘기다. 임

지민 제이엠커넥티드 대표는 "의뢰인들도 AI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라면서도 "하이브리드 통역이 AI의 한계를 인정하고, AI 발전 속 인간의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만 9465곳, 4만 1838명이었던 디자인 전문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23년 각각 2만 2580곳, 4만 2110명으로 증가했다. 매출도 같은 기간 약 4조 5402억 원에서 6조 4564억 원으로 늘었다. '비 내리는 서울을 그려줘'라는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수십 개

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디자인 산업의 인력과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디자인 톨이 발전하면서 디자이너가 디테일에 집중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섬세한 부분을 사람이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식이다. AI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영 씨는 "디자이너는 AI를 디렉팅하는 팀장으로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며 "순 기술보다 기획력과 감각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전했다. AI 제품 디자이너 조선영 씨는 "디자인을 구현해 시장 반응을 살피고 수정하는 데 보통 한 달이 걸렸는데

AI를 활용하면 일주일로 줄일 수 있다"면서도 "AI가 학습하지 않은 취향이나 유행을 반영할 때는 사람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람의 속내를 파고드는 심리상담 분야에서도 인간과 AI의 협업이 이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리상담 서비스 업체는 2020년 4889곳에서 2023년 7926곳으로 증가했다. 종사 인원도 같은 기간 2만 1763명에서 3만 2309명으로 늘었다. 접근성이 쉬운 AI를 활용해 마음 상태를 손쉽게 파악하고 필요시 대면 상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긴 것이다.

심지어 연애와 같은 인간 고유의 내밀한 심리·취향파악에도 AI가 쓰인다. 스타트업 카인디는 AI 매니저를 활용한 소개팅 서비스 '듀리안'을 지난해 설립했다. AI 매니저가 이용자와 대화해 성향과 가치관, 대화 스타일을 파악하고 각 이용자에게 어울리는 연애 상대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총 4차례에 걸친 베타 테스트 결과 AI가 맺어준 인연 중 실제 만남까지 이른 성사율이 38%에 달했다고 한다. 김하카인디 대표는 "AI니까 이용자들이 더 솔직하고 부담 없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털어놓았던 것 같다"며 "AI가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연애라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AI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AI가 고도화될수록 대체 가능성이 큰 업무보다는 인간 고유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전언이다. 이 교수는 "편리함에만 안주한다면 가치판단, 창의성 등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나·박민주·황동진 기자

“AI로 시간·비용 90% 절감 ... 신약개발 모든 단계 바꿀 것”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인 리커전과 마슈티컬스의 벤 테일러 최고재무책임자(CFO·사진)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리커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리커전은 엔비디아가 2023년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투자해 주목받은 AI 신약 개발의 선두 주자다. 바이엘,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와도 협력하고 있다.

리커전이 AI 신약 개발 부문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덕분이다. 테일러 CFO는 “일반 제약사들이 비축한 데이터나 공개데이터는 명칭이 동일해 있지 않은 등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수집 단계부터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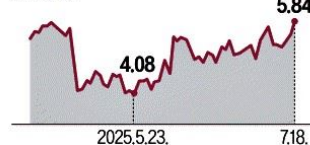
벤 테일러 리커전 CFO

엔비디아가 투자한 AI신약 기업 업계 최고 수준 슈퍼컴 보유해 2년내 후보물질 4개 임상 공개

구성한 건 리커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리커전이 보유한 독점 데이터는 65페타바이트(PB·6500만 기가바이트)에 달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도 갖췄다. 리커전이 고민하는 신약 개발 문제는 복잡한 매개 변수와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슈퍼컴퓨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테일러 CFO의 설명이다. 그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어디서 100위 안에 드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

리커전파마슈티컬스 주가
(단위: 달러)



다”며 “바이오업계에선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고비용 구조가 정착된 신약 개발 시장에서 AI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게 리커전의 판단이다. 테일러 CFO는 “현재 개발되는 신약의 95%가 실패하는데, 실패율이 지난 30년간 계속 높아졌다”며 “실패율을 낮추

려고 임상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 왔지만 오히려 비효율 구조만 정착됐다”고 진단했다. AI를 활용

하면 후보물질 선별과 환자군 확보, 임상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률

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리커전이 일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정리한 뒤 시장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테일러 CFO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신약 개발은 성공과 실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고위험 프로세스”라며 “리커전은 특정 약물의 성공보다 신약 개발 과정 자체를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전은 2년 안에 4개 물질의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포의 분열 주기를 조절하는 핵심 인자인 CDK7을 억제해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임상도 대표적이다. 테일러 CFO는 “연간 지출을 6억달러에서 3억9000만달러까지 절감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며 “2년 뒤까지 추가 투자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中企 ‘AI 에이전트’ 도입 지원 정조준

AWS, 9월까지 프리뷰 무상 제공
보안 해소 중점 ‘에이전트코어’
솔트룩스, 업무혁신센터 출범

최근 기업들이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은 우수한 자체 정보기술(IT) 역량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이런 애로를 해소하는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20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는 AI 에이전트의 대규모 배포·운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코어’ 프리뷰 버전을 오는 9월 중순까지 무상 제공한다.

에이전트코어는 개발자들이 아마존 베드록 등으로 AI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AI에이전트 도입 지원 서비스

기업	솔루션	특징
아마존웹서비스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코어	AI에이전트 대규모 배포·운영
솔트룩스	AI 업무혁신센터	AI에이전트 도입 전 과정 지원

자료:업계

다. 번거로운 인프라 작업과 운영 복잡성을 해결함으로써 관련 개발팀이 AI 에이전트 혁신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WS 측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크루(Crew) AI와 라마인덱스(Llama Index)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구축 환경이 쉬워졌다”면서도 “실제 프로덕션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한 까다로운 보안 요건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에이전트 코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듈형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커스텀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지

원함으로써 개발팀이 선호하는 도구를 유지하면서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솔트룩스는 최근 AI 에이전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AI 업무혁신센터’를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AI 기반 업무 혁신 전략 수립과 최신 AI 기술 검토, 프로토타입 개발, 본 사업 전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특히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강화에 주력한다. 2주간의 전략 워크숍을 운영해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프로토타입 설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기획을 진행한다. 기술검증(PoC) 단계별로 소통을 강화해 요구사항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개발 과정을 유연하게 조율한다. 내부 데이터 연계와 사용자 교육 등 실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요소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축적한 AI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센

터를 설립했다”며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공공기관 및 연구소, 교육기관 등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생성형 AI의 실증 적용 사례를 국내외 시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AI 에이전트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클라우데라가 조사한 글로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 리더 96%는 올해 AI 에이전트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기업 중 82%의 경영진은 AI 에이전트를 사용 중으로, 95%는 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구현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축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 늘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AI 에이전트 도입을 검토하는 곳들이 많다”며 “기존 시스템 연동이나 보안·비용 관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결할 다양한 솔루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오픈AI “미공개 추론 모델,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

샘 올트먼 “수학 외 두루 활용 가능, 다만 수개월 내 출시 계획은 없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의 미공개 추론 인공지능(AI) 모델이 세계적 권위의 수학경시대회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능을 발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픈AI는 이날 엑스를 통해 “범용 추론 거대언어모델(LLM)로 2025년 IMO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

IMO는 매년 7월 전 세계 고등학생 수학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이들

동안 하루 3문제씩 총 6문제(42점 만점)가 출제된다.

오픈AI는 자사 모델이 IMO와 동일한 조건에서 도구나 인터넷 사용 없이 5문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가장 고난도로 알려진 6번 문항은 풀지 못했다고 한다. IMO 수상 경험이 있는 평가자 3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 총 35점을 획득했다.

오픈AI는 수학처럼 특정 과업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두루 활용 가능한 ‘추론 모델’이 성과를 낸 데 의미를 뒀다. 지

난해 구글이 IMO 은메달급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한 알파프루프 등은 수학 영역에 특화된 모델이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년간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IMO 금메달급의 실험적 모델은 수개월 내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라는 자평이 나오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중국발 AI 충격, 이번엔 ‘키미 K2’

문샷 새 모델 코딩·수학 능력
챗GPT·제미니·딥시크 능가

“전 세계 AI 업계를 흔든 딥시크 충격이 또다시 왔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 문샷이 새로 공개한 모델 ‘키미 K2’가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부 기능은 미국 오픈AI의 챗 GPT, 구글 제미니, 중국의 딥시크보다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 AI 업계를 흔든 딥시크 모먼트가 또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18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문샷이 지난 11일 새롭게 공개한 AI 모델 키미 K2는 다양한 AI 모델 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탁월한 것은 코딩 능력이다. AI의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라이브코드벤치’에서 키미 K2는 ‘53.7% 패스@1’ 점수를 받았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코딩 과제의 53.7%를 정확히 해결했다는 뜻이다. GPT-4.1(44.7%)이나 딥시크-V3

(46.9%)를 뛰어넘는 점수다.

수학 문제 500개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푸는지 보는 ‘매스-500’ 능력 평가에선 97.4%의 정답률을 보여 구글 제미니 2.5프로(95.2%), 앤스로픽의 클로드 3.7 소넷(96.2%)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글쓰기 실력도 뛰어났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지를 보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v3’ 평가에선 10점 만점에 AI 모델 8.56점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제미니 2.6프로(8.38), GPT-4o(8.18)보다 높은 점수다. 키미 K2는 오픈 소스로 일만에 공개됐고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누구나 키미 K2 모델에 접근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또 다른 AI 모델 혁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앨런 인공지능연구소 관계자는 “키미 K2는 현재 가장 뛰어난 오픈 소스 AI 모델”이라면서 “미국도 상업용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AI 모델을 혁신하는 ‘딥시크 프로젝트’를 서두를 때가 됐다”고 했다. 송해진 기자

머스크 질투했나, 한국 AI모델 성과에 “그래도 우리가 1위”



세계 12위 오른 ‘솔라 프로2’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개발 모델
챗·추론 모드 겸비, 가성비 뛰어난
반면 xAI의 ‘그록’은 비용과다 평가
머스크 “성능은 1위, 빠르게 개선”

국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LLM)이 뛰어난 비용 대비 성능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해당 모델을 거론하며 자신의 회사인 xAI의 모델이 더 뛰어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19일(현지시간) 자신의 X 계정에 글로벌 AI모델 벤치마크 업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rtificial Analysis)’ 최근 게시글을 공유한 뒤 “그렇지만 xAI의 그록이 여전히 1위다. 그리고 그록은 빠르게 개선하는 중이다”는 반박성 글을 올렸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AI 업계 전문가들이 주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다.

머스크가 공유한 글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국내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신규 추론 AI모델 솔라 프로2를 전 세계 AI모델 중 성능 12위로 평가하면서 “크기와 비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한 내용이다. xAI의 최신 AI 모델 그록4는 같은 평가에서 전체 1위였지만, 함께 공개된 ‘가성비 지표(Intelligence

vs. Cost to Run)’에선 평가가 좋지 못했다. 해당 지표에서 솔라 프로2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Most Attractive quadrant)’ 내 위치해 비용 대비 성능 측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그록 4는 해당 구간 바깥에 머물러, 성능은 좋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 모델로 분류됐다.

AI업계에선 여러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온 머스크가, 자신의 AI모델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에 발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머스크의 X 게시글엔 “(1위라는 게) 그록 4를 말하는 건가 그록4의 무게(매개변수 수)를 말하는 건가?”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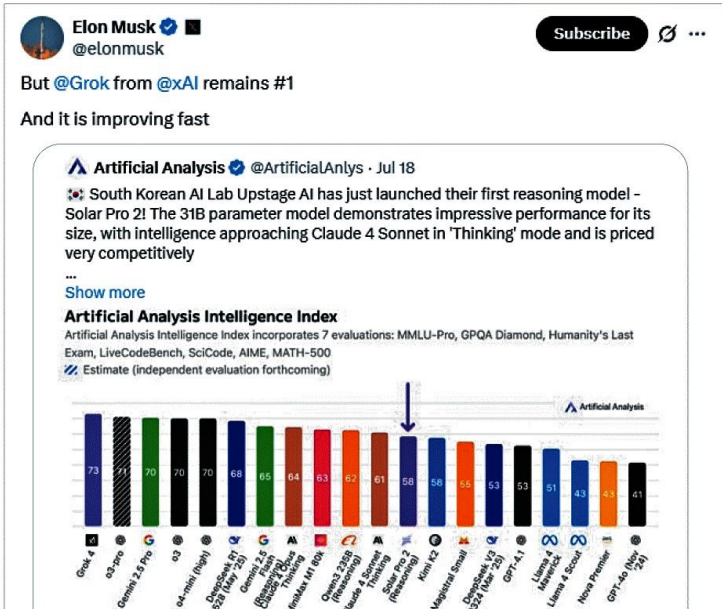
업스테이지가 지난 10일 출시한 솔라 프로2는 310억(31B) 매개변수 규모로 설계돼 최적의 성능을 내는 추론형 모델이다. 특히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한 뒤 빠른 응답에 최적화된 ‘챗 모드’와, 구조화된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받을 수 있게 한 하이브리드 기능이 장점으로 꼽힌다. 생각 사슬(CoT) 기법을 적용한 추론 모드는 수학과 코딩처럼 복잡한 작업에서 최적 성능을 발휘한다.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국내 회사가 만든 AI모델이 이 지표에 등장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개발사 업스테이지를 ‘최상위 언어모델(Frontier Language Model)’을 만드는 회사 톱10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10위권 안에 들어간 회사들은 오픈

AI·xAI·메타·구글·앤스로픽·미스트랄·딥시크·문샷AI·알리바바 등이다. 규모와 자금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머스크가 자사 모델에 대해 공개 발언하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X 댓글을 통해 “xAI가 1등인 것을 축하한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을 거다. 아주 빠르게 개선해 따라잡겠다”고 도발했다. 이에 그록 공식 계정은 “우리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을 반긴다. 솔라 LLM의 발전을 보게 돼 기쁘다. 최고의 AI가 승리하길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업계는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업스테이지의 이번 출시는 소비 AI 역량 개발을 위한 각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X(엑스)계정에 “그렇지만 xAI의 그록이 여전히 1위”라는 글을 올렸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국내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에 대해 “크기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엑스 캡처]



테슬라 차량에 탄 ‘그록’ AI 경쟁 판 바뀔수도

**자동차·스페이스X 등 데이터 확보
xAI, 독점 정보 학습으로 진화 가능
선정성·반유대주의 논란은 여전**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엑스에 이아이(x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패권 경쟁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최근 출시한 그록4를 놓고 선정성과 반유대주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테슬라는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출고되는 에이엠디(AMD) 프로세서 장착 차량에 그록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차량 디스플레이 홈 화면의 버튼을 눌러 쓸 수 있는 그록은 차량 제어 기능은 없지만, 운전자의 다양한 질문에 음성 대화로 답변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xAI), 자동차(테슬라), 로켓(스페이스X),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로 연결되는 ‘머스크 제국’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수집한 주행 데이터는 그록의 학습에 활용되고, 테슬라 차량은 이렇게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이용자에게 보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업계에선 인공지능 고도화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가운데 엑스에이아이는 자동차, 로켓·위성,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자체 생태계에서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의 인공지능 사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답변을 걸러내고자 노력하는 경쟁사 모델을 ‘깨어있는(woke) 인공지능’이라고 조롱하는 머스크포 인공지능이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엑스에이아이

가 지난 9일 공개한 최신 인공지능 챗봇 그록4는 ‘미소녀 캐릭터 챗봇’을 도입해 성 상품화 논란에도 휩싸였다. 애플 아이오에스(iOS) 버전에서 유료 가입자(월 구독료 30달러)에게 제공되는 ‘에이아이 컴패니언’(인공지능 동반자) 기능은 금발 머리에 망사 스타킹을 신은 여성 캐릭터 ‘애니’(Ani)와의 음성 대화 등을 지원하는데, 이용자가 성적 대화를 유도할 경우 캐릭터가 속옷 차림으로 나타난다. 미국 국립성착취예방센터(NCOSE)는 미성년자의 이용 등을 고려해 개발사가 캐릭터를 삭제하거나 앱을 운영하에 애플이 이용자 연령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그록은 이달 초에도 반유대주의 발언과 아돌프 히틀러를 옹호하는 취지의 답변을 생성해 논란이 됐다. 이에 엑스에이아이는 시스템 수정과 함께 사과 입장을 냈지만, 논란 직후 린다 야카리노 엑스 최고경영자가 사임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올트먼·머스크도 “잠이 보약”... 130조 슬립테크 뜬다

“생산성 높이려면 잘 자야”

글로벌 CEO들도 숙면 강조

‘만성 수면부족’ 韓서도 각광
대기업·벤처 너도나도 진출
스마트워치·앱으로 수면 분석
온도·자세 조절하는 용품 인기

“숙면은 내 생산성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적 요소.”(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

“덜 자려고 해봤지만 일이 잘 안 된다. 이제 하루에 6시간 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숙면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체 리듬 불균형, 빛과 소음 공해, 휴식 시간 축소 등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과거에 비해 증가해 잘 자기 위해서도 돈과 시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수면 진단, 숙면 용품 등 관련 산업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슬립테크 시장 규모는 211억달러(약 29조 원)였으며, 2032년 952억달러(약 130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사람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슬립테크 시장이 유망하다. 슬립테크 스타트업 에이슬립이 발표한 ‘대한민국 수면 리포트



2025’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59분으로 권장 수면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모자라다.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수면 시간의 효율도 약 85%에 불과했다. 한국수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4800억원에서 2021년 3조원으로 연 20% 이상씩 성장했고, 앞으로도 고도 성장이 점쳐진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다.

슬립테크 시장은 크게 진단과 개선 분야로 나뉜다. 진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앱)이 널리 쓰이고 있다. 갤럭시 워치는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탑재해 수면 중 뒤척임, 렘(REM)수면 시간, 혈중 산소포화도 등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측정한다. 특히 갤럭시 워치8 시리즈는 ‘취침 시간 가이드’ 기능으로 최근 3일간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취침

시간을 제안하고, 수면 중 ‘혈관 스트레스’를 측정해준다. 위치를 착용하고 자면 심혈관에 가해진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세를 알려준다.

별도 디바이스를 사지 않고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면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에이슬립 앱 ‘슬립루틴’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앱은 잠잘 때 호흡 소리를 분석해 수면을 진단해준다. 에이슬립의 또 다른 앱 ‘앱노트랙’을 이용하면 병원에서 수십 만원 이상 지불

해야 하는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수면다원검사와 비교해 90% 성능을 보이는데, 비용은 3만~5만원 수준이다.

진단 결과는 수면 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수면 상태를 바탕으로 온도, 조명, 소리, 침구 등 물리적 환경을 최적화해 숙면을 유도하는 것이다. 수면 상태에 따라 매트 온도를 조절하는 경동나비엔 ‘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이 대표적이다. 수면 중 호흡음을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매트 온도 조절하며 최적의 숙면 환경을 조성한다.

텐마인즈 ‘AI 모션필로우’는 베개 높이를 조절해 숙면을 돕는다. 음향 센서를 통해 수면 중 코골이 소리를 감지하면 베개의 에어백이 자동으로 부풀다. 천천히 부풀어 오른 에어백은 머리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기도 공간을 확보해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준다. 바디프랜드 침대 ‘라클라우드 헬스모션’은 모션 프레임을 움직여 상·하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불면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대기업들도 앞다퉈 숙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에어컨 신제품에 ‘굿슬립’ 모드를 추가했다.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과 연동해 사용자의 수면이 감지되면 에어컨을 자동으로 작동시키고 온도를 조절해준다.

서정원 기자

“기술 변화 속도 너무 가팔라 AI끼리 일하는 시대 곧 온다”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
한경협포럼서 故정주영 재생

“법인 설립부터 조 단위 매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가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AI 에이전트 솔루션으로 실리콘밸리를 장악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올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매출이 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AI)”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샌드버드는 한국인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만든 최초의 유니콘기업으로 AI 기반 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한다. 전 세계 4000여 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월간 사용자 3억명, 월 70억건의 메시지를 처리한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환영사를 현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고인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제2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가 18일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김 대표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조 단위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AI의 파괴력으로 인해 다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 1년6개월 만에 매출 1400억원을 돌파한 기업이 나올 정도로 AI 생태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김 대표는 “많은 상장사, 포천 500대 기업 등이 AI 프로젝트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사람 없이 거래가 일어나는, A2A (Agent to Agent)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의 확산은 사람보다 빠르다”며 “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주 권선우 기자

“AI공장장이 로봇 설계·운영…박사급 2명 역할”

상의, 경주서 ‘AI 토크쇼’

전방위 혁신 사례 공유
최태원 “中 제조 AI 위협적
韓日 전략적 연합해야” 강조

“AI(인공지능) 공장장’이 박사급 인력 두 명 몫 이상을 해냅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상의포럼 AI 토크쇼’ 행사장에서 한 지방 중소기업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크쇼는 ‘모두의 AI, 우리의 AI’를 주제로, AI가 실생활과 산업현장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AI 공장장’ 사례였다. 경남 사천시에서 물류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CFA의 박만현 부사장은 “공장에 처음으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을 당시 배치와 운영 최적화가 되지 않아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연 2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비용에 박사급 인력 운영비가 연 1억5000만원 이상 들어 사실상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AI 공장장이다. AI 공장장은 이른바 ‘피지컬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AI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대한상의

공간, 시간, 물리적 요소를 이해해 공장 내 물류 동선과 로봇 제어까지 설계하는 기술이다.

장영재 KAIST 교수와 AI 기업 ‘다임리서치’가 개발한 이 기술은 로봇 동선과 배치 설계를 스스로 수행하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 최적의 생산 시뮬레이션을 자동 수행한다. 장 교수는 “기존에는 박사급 인력 2명이 한 달 이상 투입돼야 했던 작업을 AI는 30분 만에 해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상의와 지역 테크노파크(TP)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조업 외에도 다양한 AI 스타트업 사례가 소개됐다.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공대의 예상욱 대표는 “초기에는 전국 세탁소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었지만, 온라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세탁 공장에 AI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옷에 부착된 케어라벨을 매일 3만개 이상 AI가 학습하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세탁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패션 트렌드 예측이나 스타일링 추천 등 신규 사업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의 재주문율은 3개월

기준 80%에 달한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꼽고 일본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중국은 우리보다 데이터가 많고 학습 능력도 빨라지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과 다른 제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배타적 경쟁이 아닌 전략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인재 확보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0만, 100만, 나아가 1000만명의 AI 인재가 필요하다”며 “초중고부터 AI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해 두뇌 유출 문제를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한재범 기자

朝鮮日報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B02면 경제종합

“韓 제조업 잃어버린 10년… AI로 일으키지 못하면 대부분 퇴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중국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제3국 시장서도 경쟁하는 상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이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AI로 우리가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한국 제조업의 거의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워닝(경고)

을 했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잘되고 돈 잘 버는데 뭐’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중국 수출을 많이 하면서 한국 제조업이 호황을 맞았는데 중국 제조업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대중 수출이 줄고 제3국 시장에서도 중국과 전부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이 석유화학 등에서 이제 중동이나 인도, 중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털어놴.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중국이 살기 위해 엄청

난 리소스를 때려 부었고 실패해도 계속 밀어붙여서 이제 거의 턱밑까지 쫓아온 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새 한국 제조업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을 뿐 아니라 노화(老化)됐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국 제조업을 일으킬 해법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그는 “희망을 AI에 거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며 “AI마저도 중국이 어플라이(적용)하는 속도가 저보다 더 빠르지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캐치업해서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EU(유럽연합)와 비슷한 ‘한일 경제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

해왔다. 최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도 “우리는 데이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일본과 손잡고 데이터를 교환해 섞어 쓸 수 있으면 AI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선 민관이 원 팀이 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좋은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길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등에 대해선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하나를 들어 주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 회장이 지난 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국내외 경영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거나, 규제 풀려서 재계가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예나 기자

부품 들고 뛰는 현대차 아틀라스... 초격차 침범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넥스트 레벨' 첨단제조업

<하>를 세터가 시장 지배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역량을 키워온 한국의 제조 기업이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현대차 수년 내 수만대 로봇 배치
조선사도 용접·조립 자동화 투입
韓 산업용 로봇 도입, 獨·日 2배
작업 습관 등 학습 데이터도 풍부
AI로봇 시장 주도할 잠재력 충분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제조 기업은 AI 로봇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로 이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한 곳이 결국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로봇 및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주머니가 잇달아 나온다. 한국의 풍부한 산업 데이터와 축적된 생산 노하우를 이용해 로봇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다소 뒤처진 생성형 AI와 달리 로봇에

적용되는 AI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 로봇에 탑재되는 AI는 생성형 AI와 달리 알고리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로봇 AI가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다. 국내 제조 기업에 근무 중인 숙련자의 위치 데이터와 작업

습관 등을 로봇 AI가 학습하면 성능 개선이 빨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미 투입된 산업용 로봇의 데이터도 많다. 국제 로봇연맹이 발간한 '세계 로봇스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직원 1만 명당 로봇 1012대를 도입해 로봇 밀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 싱가포르

(770대), 3위 중국(470대), 4위 독일(429대), 5위 일본(419대)과 격차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고도화된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신·반도체·센서 등 복합 기술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AI 로봇이 개발된 이후 투입될 수 있는 제조 현장이 많은 만큼 로봇들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어스투트 애널리티카에 따르면 로봇 시장은 지난해 269억 9000만 달러(약 37조 6946억 원)에서 2033년 2352억 8000만 달러(약 328조 5956억 원)로 9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산업이 최근 둔화하는 제조업의 '성장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21년부터 3년간 자동차·전기전자·섬유 등에 로봇

716대를 투입한 결과 생산성은 60.4% 향상됐고 불량률은 58.7% 감소했다. 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로봇을 잇달아 확대·적용하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현대차 그룹은 이르면 연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수만 대의 로봇을 수년 내 글로벌 공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올해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 표준 제정에 처음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업계도 용접이나 조립 자동화에 로봇을 투입 중이며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냉연 강판 공정에 로봇을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한국이 로봇 시장을 선도해나가려면 공급 기업(로봇 개발사)과 수요 기업(제조업체) 간 협력 강화가 필수다. 로봇 개발 기업들과 협업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별 수집하고 공동으로 설계해 관련 업무에 최적화된 로봇을 개발해 '초격차' 경쟁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국내 제조 기업들이 로봇을 바라보는 시점을 대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로봇 부품 산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육성하려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정책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약 2000억 원 규모로 로봇 관련 예산을 책정하면서 연구개발(R&D)과 민간 인수합병(M&A) 및 기업투자를 합하면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 출범시킨 'K휴머노이드 연합'을 통한 투자가 기존에 10배 이상으로 확대돼야 AI 로봇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견을 가자

서울경제·PwC컨설팅 공동기획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돈 빨아들이는 제2스마트폰” 부품사들도 휴머노이드 참전

상용화 발맞춰
로봇 관절·눈 등
생태계 장악 나서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 개발
LG이노텍은
시각감지 R&D 집중

국내 부품 기업들도 앞다퉀 로봇 산업 선진화에 합류하고 있다. 자동차·전자 등 기존 산업에서 쌓아온 센서·제어·고밀도 부품 기술을 로봇 산업으로 확장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하는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4월 기관투자가 설명회에서 휴머노이드 부품 개발 계획을 공개한 현대모비스는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룹의 로봇 개발사인 보스턴다이나믹스가 2028년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예고한 만큼 속도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만큼 범용성이 큰 것은 물론 시장 가치도 큰 분야”라며 “부품 업계도 시장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베리퍼이드마켓포트에 따르면 로봇 부품 시장은 지난해 124억 달러(약 17조 2670억 원)에서 2033년 238억 달러(약 33조 1415억 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업계도 로봇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부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전기는 최근 정보기술(IT) 중심이던 포트폴리오를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전기의 핵심 사업인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량씩 내보내는 부품으로,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로봇 산업이 팽창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곤 삼성전기 상무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MLCC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품 업체 간 협력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LG이노텍은 보스턴다이나믹스와 시각 감지 체계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LG이노텍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할 시각 감지 장치를 개발하고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스마트폰에 묶여 있던 기술력이 로봇 분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건을 기자

국내 전자부품사 로봇 진출 현황

	4월 기업 IR서 휴머노이드 부품 개발 공식화 로봇 관절 역할 ‘액추에이터’ 개발 매진
 삼성전기	휴머노이드용 MLCC 등 관련 부품 개발
 LG이노텍	5월 보스턴다이나믹스와 시각 감지 체계 개발 협약 피겨 AI 휴머노이드 모델에 카메라모듈 공급

내수 한계 갇힌 K보안 해외서 돌파구 찾는다

상장·VC 투자 유치 필수 전략
로그프레소, 美·日시장 정조준
현지 MSSP와 협업 확대 계획

S2W, 연내 코스닥 입성 목표
작년 해외 매출 6배 성장 이뤄

국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입증에 매진하고 있다. 아직 시가총액(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한국 보안 기업이 나오지 않은 데다 내수시장에 갇혀 성장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나 상장(IPO)에 성공하려면 해외 시장 공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존이자 성장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20일 정보보호산업계 등에 따르면 로그프레소, S2W, 쿼드마이너, AI스페라 등 국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먼저 로그프레소는 미국·일본 시장을 노린다. 이들 시장이 다른 지역과

달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앞세워 공략 가능하다고 봐서다. 로그프레소는 국내에서 LG CNS 등 보안제서비스제공업체(MSSP)와 협업을 진행했듯이 해외에서도 초기엔 현지 MSSP를 공략할 계획이다. MSSP를 통해 연동 지원 제품, 기술 자료 등 시장 적합성이 향상되면 직접 판매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벤더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양봉열 로그프레소 대표는 “SaaS 기반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를 주축으로 구독 매출을 높이고 이익률을 개선해 2028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는 SaaS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스플링크 클라우드, 엘라스틱 클라우드 등에 비해 성능, 제품 연동 범위, 가격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는 S2W는 해외 사업 확장을 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으로 쿼터점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 이미 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대만 증권거래소·철도청, 인터폴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 지난

해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비중은 약 24%로, 수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

안보·보안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필두로 해외 정부·공공기관을 우선 공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술적 신뢰를 확보한 뒤, 민간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또 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SAIP’을 통한 해외 AI전환(AX)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AI스페라는 회사 문을 열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뒀다. 실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크리미널 IP’는 2022년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영어버전으로 먼저 출시했으며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도 해외 시장에 맞춰 구현했다. 그 결과 현재 크리미널 IP 사용자의 약 90%가 해외 유저다. 현재까지 팔로알토네트웍스, 포티넷, 구글 등 40여개의 미국 사이버보안 대기업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화이트라벨링,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교류, 플러그인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인지도를 높여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달러 코인’ 공식화 ... 글로벌 금융 혼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코인 3법’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돼 법제화를 눈앞에 뒀다. 금융시장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던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자산으로 격상된 것이다.

▶ 관련기사 A3면

미국 하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틀 안에서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액 만큼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니어스법은 지난달 17일



스테이블코인의 공식화 美 ‘가상자산 3법’ 하원 통과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 “美를 암호화폐 수도로”
달러·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하원 벽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법안에 서명한다.

하원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클래리티(명확성) 법안’

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CBDC 감시국가법안’도 각각 찬성 294표 대 반대 134표와 219표 대 210표로 가결했다. 집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다음 금융위기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민이 개인퇴직연금(401K)을 운용할 때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 외에 암호화폐, 금, 사모펀드(PEF)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퇴직연금 운용사 등 큰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에 포함하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대적인 자금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美 국채수요 창출, 달러패권 강화 ...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빅픽처’

12 美, 가상자산 3법 하원 통과 ... ‘달러 코인’ 제도권 진입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이 통과된 것은 글로벌 금융 및 통화 질서의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단순히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넘어 세계 자금 흐름과 국제 결제 시스템에 구조적 전환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특히 달러 패권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각국 통화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 제도권 진입한 스테이블코인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공시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법이다. 은행 자회사 또는 정부가 승인한 특정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또 회계법인을 통해 연 1회 이상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된 만큼 달러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글로벌 결제 내 달러의 역할을 디지털 환경으로까지 확산할 것”이라며 “달러의 글로벌 주도권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 국채 시장의 수요처 부상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전문학적 부채

문제를 완화할 ‘꽃놀이패’로도 평가된다. 국채를 사줄 곳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큰 고민거리였다. 일본과 중국 등이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디지털자산의 역사적 전환점

1코인=1불 - 기축통화 지위 공고히
발행사, 담보자산에 미국채 편입
새로운 국채 소화채널 생기는 셈
美 만능적인 재정적자 완화 노력

코인런 댄 글로벌 유동성 검색

스테이블코인 신뢰 무너지면
금융시장 또 하나의 리스크로
韓, 외환 수급·통화정책 변수

코인 발행사는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외국 정부 외에 민간에서 미국 국채를 흡수할 기반이 생겼다는 의미다. 실제 데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국채 보유량은 1800억달러를 웃돈다. 이는 한국 보유량(1258억달러)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스콧 베네티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면 약 2조 달러까지 국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 설명하는 하원의원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프랜시스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운데)이 이날 워싱턴DC의 사당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방뉴스

주요국 미 국채 보유 현황 (단위: 억달러)			美 의회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	
1위 일본		1조1350	용도	•결제 전용(이자 지급 금지)
2위 영국	8094		발행 주체	•은행 자회사 •연방·주정부 인가 비은행기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받는 외국 발행사
3위 중국	7563		자금준비금	•발행액 100%에 상응하는 달러, 미 단기채 등
11위 대만	2929		공시	•회계법인 감사, 매월 준비금 명세, 연간 재무 감사보고
16위 노르웨이	1873		법적 방지책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방지(CFT) 등 기존 은행과 동일 수준 규제 •고객확인(KYC) 의무 포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824		규제 기관	•미 중앙은행(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대보험공사(FDIC) 등 기존 은행 규제 기관
17위 사우디아라비아	1277			
18위 한국	1258			

핀테크 등에는 기회지만 전통 은행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결제 등 은행의 핵심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은행의 비이자 부분 수익원이 잠식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스템 리스크 될 수도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시스템 리스크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거나 시장에 루머가 퍼지면서 ‘코인런’(암호화폐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국제가 대규모로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충격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에는 외환 수급 관리와 거시정책 운용에 실질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하면 은행과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는 국경간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환율 안정과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위기 시 자본 유출입 속도와 규모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달러가 원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도 가속할 수 있다. 신흥국 중심으로 달러화가 급속도로 진흥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강세가 고착화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된다. 조미현 기자

中·러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비 ... 韓은 이제서야 논의 시작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자국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지지부진한 한국과 대비되는 행보다.

18일 외신 및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징둥닷컴과 알리바바 계열사 앤트그룹은 최근 역외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

“자국통화 존재감 약해질라”
알리바바, 위안화 연동 발행 요청
러 방산기업, 루블화 연동 곧 출시
韓 ‘디지털자산법’ 지난달 발의

가해달라고 자국 정부에 요청했다. 두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을 촉진하고 달러 연동 암호화폐의 영

향력 강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달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도입되기 전 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저장’ 기능을 실현해 기존 결제 시스템

을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루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앞두고 있다.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은 최근 루블화 가치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RUBx’를 연내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선 데는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급증해 자국 통화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

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야 스테이블코인 소론과를 설치하고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이제 막 제1회차 도입 단계에 들어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웃고 있지만 차가운 얼굴 AI, 복잡한 감정도 읽는다



**LG전자 'LTER' 美 특허 등록
교차 어텐션 메커니즘 적용해
표정·목소리톤 동시 분석·파악**

LG전자가 음성 톤, 표정의 미세한 불일치 등 인간의 복합 감정까지 파악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LG전자는 '경량 트랜스포머 기반 감정 인식' (LTER) 기술 특허를 미국 특허청을 통해 공개했다. 특허는 LG전자 캐나다 토론토 AI연구소에서 개발했다.

영상(표정)과 음성(목소리 톤)을 동시에 분석,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이다. 기존 멀티모달(영상·음성) 감정 인식 AI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

최신 차량에 탑재된 멀티모달식 감정 인식 기능인 운전자 졸음 경고나 대다수 AI 스피커의 감정 인식 기능은 보편적으로 후기 융합 방식을 채택한다.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각각의 전문 AI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기쁨 90점' '분노 85점'과 같이 도출된 결과값을 마지막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영상과 음성 간 미묘한 상관관계를 놓쳐서 표정은 웃고 있지만 목소리는 차가운 '비꼬는 감정' 등을 해석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

LG전자가 확보한 LTER 특허는 결과를 합산하는 대신 '교차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영상 분석 단계에서부터 음성 핵심 감정 정보를 실시간 참고한다. 이를 통해 두 정보의 불일치

를 인간의 '눈치'와 같은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추론해서 파악할 수 있다.

교차 어텐션은 먼저 음성 분석으로,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 등을 분석해서 '음성 데이터'를 정리한다. 이어 '목소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 정보로 만든다. 영상 분석에서는 표정, 입 모양, 눈의 변화 등 영상 정보를 분석한다. 음성 분석이 만든 '핵심 정보'를 반영해서 인간 감정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TER 기술은 경량 모델로 설계돼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갖췄다"면서 "다만 제품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술을 활용해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AI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라이프스굿온에어' 행사에서 라디오 DJ로 참여해 브랜드 가치를 실천한 임직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라디오 DJ 된 조주완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브랜드가치 내재화 행사 참여
‘위시타워’ 기획·개발과정 소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구성원의 작은 관찰이 고객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라이프스굿온에어(Life’s Good ON AIR)’ 행사에서 조 CEO는 ‘인간 중심의 혁신’ 가치를 보여준 사례로 위시타워

기획 배경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분리 설치했으나 키 작은 고객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관찰한 직원이 두 제품을 일체형으로 설계하고 조작부를 중앙에 배치한 위시타워를 제안해 문제를 해결했다. 조 CEO는 “고객 불편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이야말로 브랜드 약속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행사다. 낙관적

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브랜드 약속을 일상과 업무 속에 녹여내자는 취지로 브랜드 가치를 실천한 사례를 라디오처럼 음악과 함께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 LG타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려 1만 5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사업본부장과 해외영업본부장, 최고기술관리자(CTO) 등 주요 경영진도 현장을 찾아 구성원들과 브랜드 메시지를 공유했다. 노우리 기자

전자신문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023면 인물

LG전자, 매니저 파견…제조사 관계없이 점검

LG전자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LG전자는 19일부터 충청남도 아산시와 예산군 등 수해 피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가전 제품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 및 제조사에 관계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 등을 발 빠르게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 호우로 가전 제품 침수 피해를 겪은 고객들은 LG전자 고객센터로 접수하거나 서비스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하포1리에 마련된 ‘LG전자 수해 서비스 거점’.

센터를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신영기자 spicyzero@etnews.com

LGD, 빅데이터 활용 ‘공급망 관리시스템’ 개발

美 관세·공급망 리스크 대응
소요시간 기존 2일 ➡ 6시간

LG디스플레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공급망 관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리스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빅데이터로 대폭 줄인 것이 핵심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자체 개발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은 빅데이터화 데이터

를 관리를 자동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은 재해·재난 정보, 국내의 뉴스, 소셜미디어 등 글로벌 4000여 개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크롤링(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인지한다.

이후 리스크가 확인되면 담당자들은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하게 된다. 회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신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후 리스크 인지부터 대응안 수립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기존 2일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기존 대비 시간을 87.5%나 감축한 것이다.

회사측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단순 데이터 취합 과정을 신규 시스템이

전담하고, 담당자는 리스크 대응 전략에 대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로 리스크에 대응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가 발생하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고객사에서 제품 생산 영향 여부에 대해 문의해 왔고, 담당 부서에서는 몇 시간 만에 해당 문의에 대응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를 비롯한 국내 부품 업체들의 공급망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 역시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베트

남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현지 수입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8월 1일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LG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중요한 해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이후 1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OLED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1조2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행보도 시작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슈 대응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공급망 경쟁력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ishsy@

LGU+ 금융 특화 AI ‘익시젠’ 글로벌 출격

AWS와 협업 세계 개발자에 소개
보안기준 등 충족... 기술 인정받아

LG유플러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자체 개발한 소형 언어모델(sLLM) ‘익시젠(IXI-GEN)’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아마존 베드록은 여러 기업용 생성형 AI 모델을 한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다. 개발자는 아마존 베드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과 대규모 언어 모델(LLM) 중 적합한 AI 모델을 선택해 AI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익시젠’은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엑사원(EXA ONE)을 기반으로 개발한 sLLM이다. 이번에 베드록에 등록된 익시젠은 금융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화된 금융 특화 모델로, 다양한 금융 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요약하는 등 자연어 처리(NL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금융권에서 AI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흐름에 주목해 금융 데이터를 학습한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했다.

LG유플러스가 금융 특화 익시젠의 성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자체 개발한 금융특화 sLLM ‘익시젠’을 테스트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능을 테스트한 결과, 일반 환경에서는 기존 엑사원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약 31% 개선된 성능을 기록했다. 이번 익시젠의 베드록 마켓플레이스 등록은 AWS의 엄격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보안 기준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AI 모델의 기술적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X 기술그룹장(전무)은 “이번 AWS와 협업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익시젠의 경쟁력을 전 세계 AI 개발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자윤 기자

LGU+,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피싱예방법 안내 받으면 경품 제공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고,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스는 ‘유플워크’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U+보안전문상담사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다. 유플워크는 전국 LG유플러스 매장과 연계하여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모션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유플워크 동안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공동 제작한 피싱 예방 홍보물을 바탕으로 스미싱·피싱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제인 기자

'50도 환경서도 잘 작동될까'... 극한기후에 더 혹독해진 검수

LG유플러스 단말 검수센터 현장
고온·고습·낙뢰 등 가정해 진행
“검수 품들이는 만큼 고객은 편리”

지난 17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 LG유플러스 단말 검수센터. ‘단말 수명시험’ 팻말이 걸린 검수실 문을 열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내부 온도계는 40.2도를 가리켰다. 검은 천으로 덮여진 200여개의 셋톱박스가 철제 선반 위에 나란히 진열돼 있었다.

고온(40~50도)에서 단말기 연속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에이징(Aging) 검사’ 현장이다. 여름철 셋톱박스를 밀폐된 진열장에 넣어두는 등의 다양한 고객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검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날까지 약 3만3000여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한약방에서나 볼 수 있는 약탕기 안에 단말기를 넣고 약 50도에서 196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 LG유플러스 단말 검수센터에서 지난 17일 한 직원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입력 오류 여부와 반응 속도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단말 검수센터는 고온 고습 낙하 정전기 등 각종 상황을 가정해 제품 검수를 진행한다.

이상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전자기기 검수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다. LG유플러스 단말 검수센터는 기본적인 제품 작동 여부부터 고온, 고습, 낙하, 낙뢰, 정전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검수를

진행한다. 셋톱박스, 공유기, 리모컨, 도어캠 같은 홈서비스 단말기는 출고 전 반드시 이곳 검수센터를 거친다. 윤정희 LG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 홈디바이스공급품질관리팀 책임은 “여름철

많은 집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만 그럴 수 없는 ‘코너’ 환경에 놓인 사용자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가 검수 작업에 품을 들이는만큼 고객 불편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기후 외에도 다양한 실사용 환경을 감안한 검수가 벌어진다. 셋톱박스는 실시간 방송 시청 중 끊김 여부를 확인하고 가정별 HDMI 케이블 길이에 따른 신호 안정성, 전송 속도까지 점검한다. 리모컨은 TV 거리·각도에 따른 동작 유무뿐 아니라 리모컨 버튼을 기계 팔로 50만~100만번씩 눌러 버튼의 눌림 깊이, 반응 속도, 입력 오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센터에선 국제 표준 방법인 AQL(합격품질수준) 기준을 따르고 있다. AQL은 전수 검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샘플링) 검사를 통해 전체 품질을 예측하고 일정 수준까지의 불량률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00대 중 200대 샘플을 검사를 할 경우 불량률이 3대 이상

이라면 제조업체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준은 업체마다 상이한데 LG유플러스 검수센터는 업계 최고 수준의 검수 기준을 설정하고, 신제품 초도물량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출고를 앞둔 상품뿐 아니라 고객 사용 도중 문제가 발생한 기기도 재확인한다. 고객 불만사항 재현 시험을 통해 불량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선 현관문에 설치하는 CCTV인 도어캠 검수가 진행됐다. 불량 원인 분석과 제조업체 표준작업지침서(SOP) 적용, 도어캠 연동 애플리케이션 기능 개선까지 작업이 이뤄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품질혁신센터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관련 고객 불만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수원=양윤선 기자 sun@kmib.co.kr



1999년 '반도체 빅딜' 이 물고 온 변화

반도체 산업에는 기술 뿐 아니라 사람과 권력, 시대가 얹혀 있다. 순간의 결정이 이후 산업 지형을 크게 바꾸는데, 결정 이면에는 정치권의 입김, 시장 사이클, 오너의 결단, 이사회의 선택이 복잡하게 얹혀있다. The JoongAng PLUS K반도체 연구는 권력 질서, 조직과 인물의 판단이 만들어낸 지난 역사를 복기하며, 다시 부상하는 한국 반도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본다. 이우림·심서현·박해리·이기람 기자 yj.woolim@joongang.co.kr

반도체 버렸다? 버렸다! LG그룹 '26년 복수혈전'



1998년 1월 13일 김대중 당선인과 4대 그룹 총수의 첫 상봉 자리. 왼쪽부터 구본무 LG 회장, 박태준 자민련 총재, 정몽구 현대 회장, 김 당선인, 이건희 삼성 회장, 최종현 SK 회장. (중앙포토)



지난해 6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반도체 설계 업체 '텐스트렌트'의 짐 켈러 CEO와 만났다. 짐 켈러 CEO는 반도체 설계 분야 '전설'로 꼽힌다. [사진 LG전자]

◆ 'LG 구 회장과 반도체' = 2024년 6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사진 한장이 화제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트렌트의 짐 켈러 최고경영자(CEO)와 나란히 서서 미소 짓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사진이었다. 짐 켈러 CEO는 AMD의 중앙처리장치(CPU),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칩을 설계해 '현직 전설'로 꼽히는 인물. 사진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LG가 AI 반도체 판에 뛰어 들었다'. 한편으로는 25년 전의 회한을 되살린다. LG는 한때 세계 5위였던 반도체 사업을 타의로 내려놔야 했었다.

"반도체는 선진에서 일으킨 산업으로 저회엔겐 가족과도 같습니다. 재무구조도 우수합니다(구본무 LG 회장)." 1999년 1월 6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중 대통령(D)과 마주한 구본무 당시 LG그룹 회장이 말했다. LG 반도체를 지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나 D는 침묵했다. '재고의 여지는 없구나...' 직감한 구 회장은 결국 다시 말했다. "아쉽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 LG반도체 지분 100%를 모두 넘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독대는 30분 만에 끝났다.

현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 이른바 '반도체 빅딜' (대기업 간 사업 맞교환)의 물밑 이야기다. 1990년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삼성(세계 D램 점유율 1위)·현대(2위)·LG(5위)의 삼각 편대였지만 IMF 외환위기가 직후 출범한 DJ 정부는 1998년 기업 간 중복 투자를 정리하는 빅딜을 추진했다. 반도체 1위 삼성은 두고, 현대와 LG를 묶는 안이 추진됐다. 1979년 대한반도체를 인수하고 금성반도체를 세우면서 본격 시작된 LG의 반도체 사업은 그렇게 현대에 넘어갔다.

※참고: 『(DJ vs 재벌) 빅딜게임 :월간중앙 기획 시리즈』(1999, 이영필)

◆ 숨겨왔던 LG의 반도체 DNA= 2023년 7월 LG전자는 가전용 AI 반도체 'DQ-C'를 깜짝 공개했다. 3년간 개발해 자체 설계한 집이다. 딥러닝을 통해 탈수 시 세탁물을 균일하게 분산시키거나 음성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등의 AI 기능들이 DQ-C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표면적으로 LG의 '반도체 사업'은 없지만, 내부에서는 TV·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다. 그 핵심은 600여 명 규모의 LG전자 시스템온칩(SoC) 센터.

지난 6월 23일 서울 양재동 SoC센터에서 만난 김진경 센터장은 "우리는 알파고 열풍(2016년) 이전인 2015년부터 AI 관련 연구를 해왔는데, AI 가전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요즘은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제품에 최적화된 칩을 써야 원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마진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TV의 음성·영상 인식 제어와 화질 조절 기능에 적용되던 AI칩은 이후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생활가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됐다. 현재는 차량용 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구광모 회장이 짐 켈러 CEO를 만난 것도 차량용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텐스트렌트의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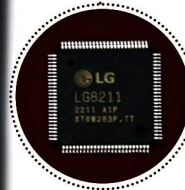
◆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한 한화·두산 = "헤이, 토니! 잘 지냈어 친구?(Hey, Tony. How are you, pal?)" 2022년 7월 백악관을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기다린 건 '친구 토니'를 외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다. 물론 이날의 환대는 SK그룹의 미국 내 투자 발표 때문이었지만, '미국 대통령도 친구 먹는 반도체 기업'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대기업에게 반도체 사업은 높은 성장률을 담보할 뿐만 아

1
빅딜 뒤에도 칩 연구해온 LG
가전용 AI칩 '물 만난 고기'격

2
"성장을 높고 전략적으로 중요"
한화·두산도 반도체 드라이브

3
대만, AI시대 반도체 강국 부상
한국, 설계 역량이 경쟁력 관건

LG전자의 가전전용 AI칩



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돈뿐 아니라 '존재감'에서 반도체 산업은 압도적이라는 거다.

한화그룹의 기계장비 계열사인 한화정밀기계는 올해 초 반도체 기업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며 사명을 '한화세미텍'으로 바꿨다. 한화세미텍은 지난 3월 SK하이닉스로부터 420억원 규모의 'TC본더' 납품 계약을 따냈다. TC본더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필수 장비로, 한미반도체가 시장을 독점했으나 한화가 개발 착수(2020년) 5년 만에 납품에 성공했다.

한화의 반도체 사업 강화는 '미래 승계'와도 직결된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방산·우주·에너지 분야에서,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부문에서 각각 입지를 다졌다. 유봉 사업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은 지난 2월 한화세미텍 미래비전총괄로 합류하며 반도체와 로봇 등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히기 시작했다. 사명 교체는 그 신호탄이었다.

'한화세미텍' 과감한 행보로 뒤따랐다. 한화세미텍은 SK하이닉스에 'TC본더'를 제때 납품하지 않아 손실을 입힐 시 최대 1000억원까지 보상하겠다고. 자사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대목이다.

"중후장대"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두산은 4세 경영인 박정원 회장이 2016년 그룹 회장에 오른 이후 '첨단 미래'의 반도체로 입지를 넓히는 중이다. 박 회장은 2022년 4월 반도체를 그룹의 새 성장 축으로 삼겠다고 반도체 테스트 기업 '테스나'를 4600억원에 인수했다.

두산그룹 지주사인 (주)두산의 전자 BG 사업부가 해오던 반도체 사업도 AI

훈풍을 탔다. 전자BG는 반도체·통신장비 등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데 지난해 엔비디아에 주력 제품인 동박적층판(CCL)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사상 첫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 설 자리 좁아지는 한국... 대만의 부상 = "대만을 AI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지난 5월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쟁쟁한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다. 그는 타이베이 북부에 AI 반도체 설계와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AI 기지로 '대만'을 점찍은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공인된 '메모리 최강자'로 군림해 왔다. 그런데 AI 생태계가 확장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지금처럼 메모리 의존도가 높으면 점차 단순 부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계 역량을 높여 비(非)메모리 시장 공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일 PwC는 지난달 발표한 'AI 품은 반도체: K반도체, AI에서 찾는 도약 기회' 보고서에서 "한국은 메모리 시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향후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봤다.

다만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I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 없이는 가동할 수 없는 분야. 잘하면 메모리를 두고 시스템반도체 쪽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둘 다 놓칠 수 있다"며 "그간 잘 해 온 메모리 분야 기술을 정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반도체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낸 '반도체 연구'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